

동행

소년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정확히는, 담대해지고 싶었다. 어떤 두려움 없이 어딘가로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인생을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여행자]

그래서 소년은 인생을 여행으로 산다고 말하고 다니던 옆집의 여행자를 찾아갔다. 여행자의 집 앞에는 여행자의 편지가 그 자신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소년은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한 달 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유'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채워야겠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오늘도 글을 쓴다. 글을 쓰는 이유도 그렇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 글쓰기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싶었다. 글을 쓰기 위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글을 써도 되는 이유, 나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글을 쓰며 나는 나의 감정을 채웠다. 나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고 싶었고, 나는 그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다. 글을 써서 글을 완성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글 쓰는 이유는 내가 쓴 글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글쓰기 모임을 통해 글을 쓰고, 글을 통해 나를 채우고, 글을 통해서 나를 채워나갔다. 그렇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글을 썼다.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글쓰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을 쓴다는 건, 내가 그걸 채우면 되는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글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 나는 계속 글을 썼고, 그 글들을 써보려고 노력했고,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점점 그 욕심을 채워갔다. 그 욕망을 채우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욕망을 채우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욕망을 채울 수록 여행에서의 여유는 커져 갔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여유'를 원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여행은 나를 성장하게 해 주었고 나의 욕망은 채워졌다. 나는 여유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사실 여행 전 여유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좋아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여행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그 이유는 바로 '여행'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나는 많은 곳을 다녔다. 그 중에서도 한 달 살기 같은 숙소도 선택했다.

나는 그 선택에 만족했다. 하지만 나는 한 달을 살기 좋은 숙소를 선택하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숙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무작정 선택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숙소에 머물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다른 숙소로 이동했다. 그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여행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는 나에게 여행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그 선물은 나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나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보았다. 그 선물에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건 바로 나였다.

예전이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힘들어 했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싶어 여행을 더 자주 다녔다.

그때는 여행을 잘 못 가는 편이었다. 그래서 더 여행을 안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내가 여행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다. 더 많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진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더 솔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더 깊게 솔직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을 낳고,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깨달음을 여행으로 얻었다. 여행은 살아보아야 하는 일이지 않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나의 여행이 아닐까.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여행을 간다. 오늘은 여행의 시작이다. 어제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이 내일의 내가 될

것 같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의 모든 하루는 다 여행이지 않은가.

그 여행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내일은 더 늦기 싫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여행이다. 언제나 깨달음과 성장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 여행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그 해 여름, 나는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했다.

여행자의 글은 소년에게 떠나라 말했다. 소년은 그의 깨달음을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에 대해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

[더 감동하기 위해, 더 감동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예술가]

소년의 눈에 예술을 하는 이들은 언제나 특별했다.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도전할 용기가 있는 담대한 이들이라고 소년은 생각했다. 소년은 예술가를 찾아가 물었다. 용감한 사람들만 예술을 하나요? 저는 담대해지고 싶어요. 예술가가 머리를 매만지며 답했다.

예술이란 무엇일까? 예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먼저, 예술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술가를 '특별한 사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예술가들은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 자체로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이다. 예술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찾으면, 그들은 '특이성'을 찾아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그들의 '순수성'이 세상의 빛을 비춘다.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이다. 이 수업이 예술가의 독창성이자 삶의 방향성인 이유다.

나는 예술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도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말

이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예술을 해야 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틀릴 수도 있다. 예술은 곧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예술 작품에서 대답하고 용기 있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부정적인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가히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이 가진 힘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예술가의 삶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술가에게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술가도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술가 또한 자신의 작품에 감동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예술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만들어 낸 작품 안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모든 삶은 저마다의 삶이며 동시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술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예술적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 예술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단한 예술가라고 순탄한 삶을 살았으랴. 그들이 시련과 역경에 가진 용감한 마음가짐이 그들의 작품에 녹아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시절을 살아낸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관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열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우리는 그 열정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지,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보고 싶다면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자. 그 과정은 우리를 기쁘게 해 줄 것이다.

소년은 예술가의 말을 곱씹었다. 시련과 역경이 만든 마음가짐을 앞으로는 예술작품에서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소년의 감동과 열정도 찾아보기로.

[사회의 성장을 희망하는, 교육자]

소년은 마음 속에 불만이 있었다. 어른들은 왜 우리에게 담대해지라 하나요? 그들은 담대한가요? 소년은 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스승이라 불리는 교육자를 찾았다. 주름진 얼굴의 교육자는 소년의 질문을 듣고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이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지금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아실현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 청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 확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구성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미래의 꿈을 위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제 청소년 스스로가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라 생각되길 바란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워나가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인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아실현, 꿈과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가치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초년생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실현" 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도전"과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청소년에게 꿈의 실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인생철학" 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방향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것"의 방향성이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사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꿈은 현실

과의 괴리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는 어떠한 목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없는 청소년을 바라본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삶의 전환"이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들의 고민과 고민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단지 현실적인 목표만 있지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은 없다. 단순히 목표만을 내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이 아닐까 싶다. 우리 모두는 청소년의 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민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년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안다.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함께 병행하는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청소년들에게 '꿈을 위해'라는 말을 해줄 때 청소년들도 진정으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로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속에서 우리도 많은 사람이 꿈을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로 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꿈으로 만들어갔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그 과정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에서부터 시작하여 긍정적인 동기를 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자극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사이클을 조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어른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초년생들에게 대범함의 가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어른들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책임감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책임감이 사회 구성원들

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른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은 사회 전체에 내재된 것이라고 본다.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의 의식수준에 맞추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책임감에 기반한 공동체이다. 하지만 사회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어른들은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에 기반한 책임감의 사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책임의 의식이 사회 전반에 내재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책임이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책임이란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책임만 질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책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책임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책임 의식과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사회다. 책임감이란 개인의 책임과 자기의 책임을 구분 짓는 사회이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질 때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인 스스로의 책임 의식에 대해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가 개개인의 책임을 인정해야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고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가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가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개인을 비롯한 사회 각 단체에서, 집단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교육자의 말은 어떤 면에서 소년을 위로해주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꿈을 위해 나아가는 사회. 모든 이들이 바란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소년은 그러길 바랐다.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낭만주의자]

소년은 생각했다. 그는 늘 답대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사랑받고 싶었다. 미움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소년은 모든 사랑에 통달했다는 낭만주의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답대한 사람들은 사랑

받나요? 혹은 미움 받나요? 낭만주의자는 글 하나를 소년에게 남겼다.

미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담대함을 가로막는다. 나의 사랑 또한 담대함을 실천하지 못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괜한 고백을 남발하기도 한다. 그건 어쩌면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랑과 우정.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상처주거나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 이해 받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게 물었다. 내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뿐이겠지. 하지만 사랑은 나만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없었다.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안을 자유롭게 채울 나를 위한 공간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아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곤 한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랑은 그런 거 같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그런데 요즘은 이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내가 될 더 잘해주거나 더 사랑해주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 그걸 내가 잘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것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낀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사랑할 수 있기를. 그게 내가 할 수 있을 수 있던 전부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 사랑을 할 땐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담대한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그러니 사랑받을 용기를 가지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그 용기가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곁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그런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걸 알면서도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그렇게 몇 달 후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글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 미움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게 용기를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겁 먹지 말고 담대해져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줄 수 있는지, 내 마음의 온기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용기를 낼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담긴 사랑을 담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연애를 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다.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아해주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렇게 서로가 좋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엔 나의 사랑에도, 상대방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아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받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괜찮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아꼈으면 한다.

이제는 용기가 생겼으리라 믿는다. 용기와 사랑 모두 인생에 필요하다. 용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도움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일이다. 그 고마운 마음이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낭만주의자의 글을 끝낸 소년은 사랑과 용기에 대해 조금은 이해한 것만 같았다. 마음의 온기를 전해 줄 용기. 소년은 낭만주의자의 글을 그의 마음 속에 고이 넣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그 풍파 속에서 나아가는 철학자]

소년은 무언가를 알 것 같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소년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도시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철학자였다. 저는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담대하고 싶지만, 여전히 겁이 많아요. 머리가 하얗게 켜 철학자가 말했다.

죽음을 알아야 비로소 삶을 깨닫는다. '살아있음'이란 단어를 떠올려 보자. 살아있는 것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인생'이다. 인생은 짧지만 인생의 긴 여정이기도 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가고자 한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채워라. 그렇게 나만의 가치를 찾으면 될 일이다. 나를 찾아가는 길,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래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찾는다. 내 안의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며 살아가는 것. 나의 소중한 것들을 사랑한다. '내일을 위한 시작'을 나는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말은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지금 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이 내일의 출발이 아닌가. 나는 오늘도 나를 찾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그래 지금 내일을 위해 내일은 내 일이 되련다. 오늘날만큼은 내일로.

먼 곳을 향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 누구도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존재다. 고통이 주는 아픔은 결코 가버울 수 없다. 그 모든 고통들을 피하려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외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통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통을 마주한 적이 있기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용기를 내야 한다. 그 용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고통을 겪게 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고통스러

운 삶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게 살자. 우리 모두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스러울 때 기꺼이 웃어주는 일뿐이다. 고통스러워하지 말자! 고통이라는 단어에는 '힘에의 의지'가 들어 있다.

이 말들이 언젠가 이해가 된다면, 그때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라. 철학 없는 삶은 죽음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철학은,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다. 내가 철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철학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고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철학적 삶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철학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나는 이 걸 해야 겠다." 그리고 나의 철학은 내게 삶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왜 나는 철학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삶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니체의 삶이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니체의 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운명을 사랑하라. 비록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너의 운명은 너를 사랑한다. 네 운명의 주인이 되라! 그래, 네 운명도 너와 함께 하기로 하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운명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 혼자 뿐인 나,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년은 날카로운 듯 다정한 철학자의 말에서 따듯함을 느꼈다. 그의 운명, 그리고 그의 삶.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건 이제 이전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소년]

소년은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용기를 얻었다. 답답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 것 같았다. 돌아온 그 날부터 내 머릿속에 각인된 생각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노력할까?'라는 질문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그 질문들을 떠올리며 나를 한심해하게 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의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 때 깨달았다. 나에겐 내가 하고 싶

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번 여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었다. 내가 해온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나는 그것들을 위해 내 시간을 포기하기도 했었다.

과거의 나는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존재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일들로 나를 채웠고, 그 시간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자고 한다.